W웨딩컨벤션·에슬레틱스·정진산업스카이 레드워리워스·쏘울스토리·뉴욕야시장·하나로야구단

◇무등기 3주차 전적 (광일리그 16강전)
▲16일 1경기(6회 시간제한승)
파죽지세 112200-6
W웨딩컨벤션 003301-7
△승리투수 : 정승환 △홈런 : 김건오(3회 2점·파죽지세)
▲16일 2경기(5회 콜드승)
에슬레틱스 31023-9
안타쳐블 00000-0
△승리투수 : 김경태
▲16일 3경기(5회 콜드승)
MK한방병원 30504-12
레드워리워스 8124X-15
△승리투수 : 김동현
▲17일 1경기(4회 콜드승)
정진산업스카이 25104-21
화이트워리워스 0011-2
△승리투수 : 최홍준
▲17일 2경기(6회 시간 제한승)
에프나인 005202-9
쏘울스토리 031033-10
△승리투수 : 김태호 △홈런 : 박종현(3회 2점)·조성훈(6회 2점·이상 에프나인)
▲17일 3경기(5회 시간제한승)
뉴욕야시장 26065-19
광주레인보우 00430-6
△승리투수 : 류진
▲17일 4경기(6회 콜드승)
어벤져스 001001-2
하나로야구단 240012-9
△승리투수 : 박민혁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기 광일리그 열전이 시작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3주 차 경기가 무등중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진행됐다. 8강 진출팀이 가려진 무등리그에 이어 광일리그의 우승 도전이 시작됐다.

무등중에서 경기가 진행된 16일 W웨딩컨벤션, 에슬레틱스, 레드워리워스가 8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W웨딩컨벤션은 파죽지세를 상대로 7-6 역전승을 거뒀다. 1회 선취점을 허용한 W웨딩컨벤션은 3회 파죽지세 김건오에게 투런포까지 내줬다. 그러나 0-4로 뒤진 3회 3점을 뽑으며 추격을 시작한 뒤, 3-6에서 맞은 4회 승부를 6-6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6회말 승리를 완성하는 추가점을 뽑으며 광일리그 첫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에슬레틱스는 선발 김경태의 1행K 호투로 안타쳐블을 9-0으로 제압했다. 에슬레틱스가 1회 3점을 만들며 초반 분위기를 잡았다. 타선이 착실하게 점수를 만드는 동안 선발로 나온 김경태는 5회 1사까지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마운드를 무실점으로 지켰고, 9-0 콜드승의 주인공이 됐다.

레드워리워스는 MK한방병원과 화끈한 화력전을 벌인 끝에 15-12로 승리했다. 1회초 수비에서 3점을 내준 레드워리워스 1회말 바로 8점을 뽑으며 전세를 뒤집었다. 레드워리워스는 3회에도 5실점을 하며 위기도 맞았지만 매이닝 착실하게 점수를 만들며 15-12로 8강행을 확정했다.

17일에는 광주일고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정진산업스카이가 3회 대거 10점을 뽑아내며 화이트워리워스에 21-2 대승을 거뒀다. 1회 2점을 만든 정진산업스카이가 2회 5점 그리고 3회에는 10점을 한 번에 몰아내면서 일찍 승기를 잡았다. 경기는 21-2, 4회 콜드승으로 마무리됐다.

쏘울스토리도 에프나인과의 화력 싸움 끝에 10-9, 8강 티켓을 가져갔다. 쏘울스토리가 2회 3점을 먼저 뽑았지만 박종현의 투런을 앞세운 에프나인에 3-5 역전을 허용했다. 6회에도 에프나인 조성훈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7-9에서 시작된 6회말 공격. 상대의 한방에 울었던 쏘울스토리는 이기홍의 끝내기 3타점 2루타로 웃었다.

뉴욕야시장의 방망이도 매서웠다.

광주레인보우를 상대한 뉴욕야시장은 3회를 제외한 4이닝에 모두 점수를 뽑아내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홈을 밟은 뉴욕야시장의 주자는 모두 19명, 경기는 19-6 뉴욕야시장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3주 차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하나로야구단이 됐다. 하나로야구단은 어벤져스와의 승부에서 1회 2점을 만든 뒤 2회 4점을 뽑으며 기선제압에 성공, 9-2로 3주차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또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가을잔치'에 동행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일리그 8강 진출

17일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광일리그 16강전 에프나인과 쏘울스토리의 경기에서 3회말 쏘울스토리 공격때 2루주자 박용모가 견제구에 귀루하고 있다. 경기는 쏘울스토리가 10대9(시간제한승)로 승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랑이 후반기 첫 일요일 승리…팀 최다승 타이

KIA, kt 4-3 누르고 81승…1993년·2009년 정규시즌 우승 뒤 KS까지 제패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4회말 2사 1루에 KIA 나지완이 역전 투런홈런을 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호랑이 군단'이 후반기 첫 일요일 승리로 팀 역대 최다승 타이를 이뤘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전날 17-3의 대승으로 80승을 달성한 KIA는 이날 승리로 팀 역대 최다승인 81승과 동률을 이뤘다. KIA는 1993년과 2009년 81승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뒤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했다.

나지완이 1-2로 뒤진 4회 역전 투런포로 포문을 열었고, 이범호는 2-3으로 역전된 7회말 2타점 적시타로 결승타를 만들었다. 4-3으로 앞선 9회 출격한 김세현은 1점을 지켰다.

선취점은 kt가 가져갔다.

KIA 선발 팻딘이 1회 1사에서 오태곤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로하스의 타구 때 우익수 최원준이 낙하지점을 놓치면서 1타점 3루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팻딘은 이후 윤석민과 유한준을 각각 2루수 플라이와 포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팻딘이 4회 연속안타로 다시 위기에 몰렸지만, 운이 따랐다. 1루 주자 윤석민이 유한준의 타구 때 3루 진루를 시도했고, 우익수 최원준의 정확한 송구에 아웃이 됐다. 팻딘은 이후 중견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4회도 실점 없이 넘겼다.

4회말 KIA가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김주찬과 버나디나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3루에서 더블 스틸이 나왔다. 버나디나가 2루에 안착했지만 3루로 귀루하던 김주찬이 아웃됐다. 설상가상 최형우의 중전안타 때 홈에 들어오던 버나디나가 허벅지 통증으로 정상적인 주루를 하지 못한 채 아웃됐다.

위기에서 나지완의 한방이 터졌다. 나지완은 로치의 직구를 좌중간으로 넘기며 시즌 25호포를 작렬했다. 승부를 뒤집은 투런은 나지완의 1000번째 안타이기도 했다.

그러나 팻딘이 승리로 가는 마지막 고비는 넘지 못했다. 6회초 로하스와 윤석민 그리고 유한준에게 연속 3안타를 맞은 팻딘이 남태혁의 희생플라이로 2-3 역전을 허용했다.

승리는 임창용의 몫이었다. 7회 1사에서 팻딘이 중전안타를 허용하자 마운드 교체가 이뤄졌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임창용은 첫 타자 정현에 우전안타를 맞았지만 오태곤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7회말에도 KIA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선두타자 나지완의 안타에 이어 서동욱의 번트 실패로 2볼 2스트라이크. 번트 모션을 취하던 서동욱이 빠르게 강공으로 나서 좌중간을 갈랐다. 그리고 무사 2·3루에서 이범호가 우측으로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역전극을 연출했다.

임창용이 8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뒤 9회 등판한 김세현이 2사 3루까지 몰렸지만 대타 장성우를 스탠딩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4-3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3번의 우천취소 속 5연패를 기록했던 KIA의 후반기 일요일 첫 승리가 기록된 순간이었다.

결승타의 주인공 이범호는 "치려는 마음이 강했다. 투볼이라서 직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체인지업이 높게 와서 방망이 끝에 맞췄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어려운 경기의 연속이었고 선수들도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승리로 안정적으로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버나디나는 병원 검진 결과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2~3일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감독 "홈런 친 호령이, 연습때 신났다"

81승 세이브 김세현 "앞선 패배 화가 났었다"

덕아웃 톡톡

▲왜 하필 = '중고 신인' 이민우는 지난 14일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생애 첫 등판에서 타선의 화끈한 지원 사격 속에 선발승을 거뒀다. 역대 25번째 KBO 데뷔전 선발승의 주인공이 된 이민우는 "처음 선발 등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았는데, 상대가 (잘나가는) 롯데라서 왜 하필 롯데냐고 생각을 했었다(웃음). 크게 긴장은 되지 않았다. 팀이 1회 7점을 뽑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실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진 뒤 긴장이 다 풀렸던 것 같다. 다음에도 자신 있게 던지겠다"고 말했다.

▲연습 때 신났어 = 신바람이 난 홈런 타자 김호령이다. 김호령은 16일 kt와의 경기에서 7회말 1사 1·2루에서 kt 강장산의 직구를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겼다. 김호령의 시즌 마수걸이 홈런이자 통산 10호포. 홈런 포함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호령은 경기가 끝난 뒤 "몸이 무너지고, 변화구에 방망이가 나갔는데 후반기 경기에 나서면서 그런 부분이 좋아진 것 같다. 지난해에는 운이 좋은 홈런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았던 점도 있었다. 오늘은 좋은 홈런을 친 것 같다"고 웃었다. 그리고 17일 경기를 앞두고 김호령을 붙잡고 훈련을 진행했던 김기태 감독은 "어제 호령이 잘 쳤다. 연습 때 신났다"며 웃었다.

▲지난날이 생각나더라 = 어렵게 밟은 80승 고지, 지난 날을 돌아본 김기태 감독이다. KIA는 16일 kt전 17-3 승리와 함께 올 시즌 80번째 승리를 신고했다. 80승 선착은 1993년과 2009년에 이어 팀 세 번째. 80승 선착팀의 우승 확률은 100프로다. 김기태 감독은 17일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이 힘들지만 잘 해줘서 만든 결과다. 80승을 하고 보니 지난날이 생각났다. 조계현 수석과 술 한잔하면서 돌아봤다. 좋았던 것도 생각나고, 감사한 것도 생각났다. 또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다. 팬들의 보이지 않은 에너지가 힘이 됐다"고 80승 선착 소감을 밝혔다.

▲화가 났었다 = 앞선 패배에 화가 났었다는 김세현이 힘으로 1점의 승리를 지키고 팀의 81승을 완성했다. 김세현은 17일 kt와의 경기에서 4-3으로 앞서 9회 등판했다. 1사에서 대타 이진영에게 2루타를 내준 김세현은 이해창의 우익수 플라이로 2사 3루까지 몰렸다. 하지만 대타 장성우를 상대로 스탠딩 삼진을 잡으며 세이브를 기록한 김세현은 "앞선 패배로 나 자신에게 화가 났었다. 앞서 직구에 힘을 제대로 싣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힘으로 승부하자는 마음이었다. 빠른볼에 자신있어서 힘으로 누르려 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청 여자양궁, 종합선수권 金

광주시청 여자 양궁팀이 종합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예천에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9회 양궁 종합선수권대회 리커브 통합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여주시청과의 슛오프 접전 끝에 5-4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

이특영, 최민선, 김소연, 기보배가 출전해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광주시청은 8강전과 준결승에서 차례로 대구서구청(5대3)과 순천시청(6대2)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시청은 여주시청과 결승에서 4세트까지 동률을 이뤘으나 이어진 슛오프에서 접전을 벌여 27(9-9-9)대 26(9-9-8)로 승리를 거뒀다.

단체전 우승에 기여한 김소연은 50m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전했다.

박채순 광주시청 감독은 "태풍의 여파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박감독은 이어 "17일부터 2018년도 국가대표 선발 1차전이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며 "선발전에 출전하는 이특영과 김소연, 이소현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남자테니스, 데이비스컵 지역 1그룹 잔류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 지역 1그룹 잔류에 성공했다.

김재식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17일 강원도 양구 테니스파크에서 열린 2017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강등 플레이오프(4단1복식) 대만과 경기 마지막 날 3단식에서 정현(44위·삼성증권 후원)이 위정위(592위)를 3-0(6-4 6-2 6-1)으로 완파했다.

대회 첫날인 15일 1, 2단식에 출전한 정현과 권순우(208위·건국대)가 2승을 먼저 챙겨 기선을 제압한 한국은 전날 복식에서 대만에 패했으나 이날 정현의 승리로 3승 1패를 기록, 남은 4단식 결과와 관계없이 2018시즌 1그룹 잔류가 확정됐다. 정현은 혼자 2승을 따내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은 세계 16강에 해당하는 월드그룹에 이어 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아프리카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1, 2그룹 순으로 세분된다.

한국은 이형택(41·은퇴)이 이끌던 2008년에 월드그룹에 진출한 바 있고 2011년 지역 2그룹으로 강등됐다가 2012년 1그룹으로 복귀, 2018년까지 7년 연속 1그룹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경기에서 패한 대만이 2018시즌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2그룹으로 강등됐다. /연합뉴스